

다이안지 절터

다이안지 절은 이와미 은광의 초대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였던 오쿠보 나가야스(1545~1613)의 보다이지(한 가문의 일족이 선조의 혼령을 기리기 위해 짓는 사원)로 1605년에 세워진 정토종(淨土宗)의 사찰입니다. 유능한 관료면서도 광산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던 오쿠보는 도쿠가와 막부의 초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가 1600년에 은광의 지배권을 획득하자마자 곧 은광의 부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와미 은광의 큰 번영에 기초를 닦은 것으로 평가되는 오쿠보는 이후에도 귀금속 자원이 풍부한 여러 지역에서 감독자로 등용되었습니다.

오쿠보는 69세의 나이로 사망했지만, 이 다이안지 절에 마련된 묘는 실제 그의 사체를 매장한 곳이 아닌 일종의 기념비로 오쿠보가 사망하기 훨씬 이전에 세워졌습니다. 이름 높은 은광의 부교를 모신 땅에서 잠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쿠보의 무덤을 중심으로 묘지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다이안지 절은 1943년까지 남아 있었지만 대홍수와 잦은 산사태로 인해 건물은 전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오쿠보의 무덤을 포함한 묘지 일부만이 남아있는 지금은 긴잔(은광)강의 산책로에서 돌계단을 올라가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